

국내 最古 목조건물 봉정사 극락전 무너질 위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의 지붕 끝 부분이 처지고 벽면과 기둥에 금이 가는 등 무너질 위기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청이 전면 보수에 나선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체조사를 맡았던 김동현 전 문화재연구소장은 "지붕 앞쪽은 겹처마, 뒤쪽은 홑처마로 되어 있어 무게가 나중으로 갈수록 무너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밝혀져 문화재청이 전면 보수에 나선다."

고 말했다.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시대인 1200년대에 지어져 1363년 공민왕 때 1차 수리를 한 후 1635년 조선 인조 때 두 차례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1972년 당시 문화공보부의 요청으로 안동군이 발주해 75년까지 3년에 걸쳐 해체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이 때 종도리 하부에서 조선 인조 3년(1625)이라는 중수기 상량문이 발견돼 국내 최고의 목조 건물로 확인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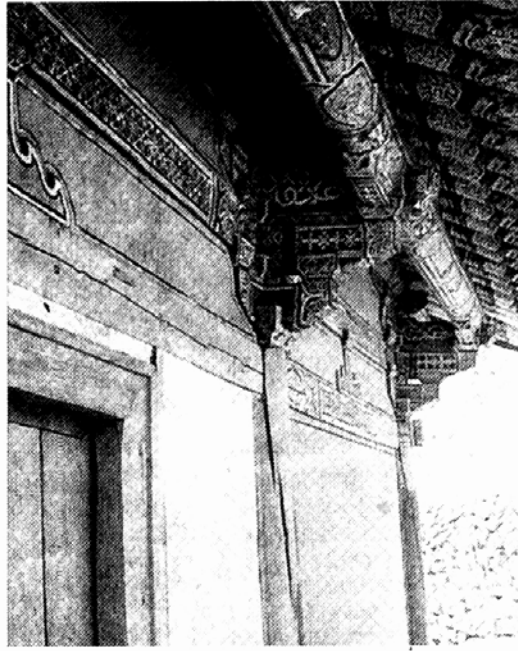
지붕 처지고 기둥 균열 72년 보수 부실 가능성

문화재청 "7억예산 보수"

문화재청과 안동시, 봉정사에 따르면 극락전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공포 8개 가운데 4개는 뒤쪽 4개에서 균열이 발생해 아래로 꺾여있고 기둥도 심하게 금이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극락전 기와가 얽혀 있는 지붕 끝부분이 아래로 처져 있는 데다 벽면에 금이 가면서 건물 뒤쪽 벽면 일부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죽은 출처마였으나 해체조사 과정에서 지붕 뒤쪽도 부연물만 겹쳐져 지붕이 밝혀져 원형대로 고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미술공예실장은 "지붕의 무게 때문에 처지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72년 보수공사 과정에서 기둥을 교체하면서 국내 최고 목조 건축물에 외국산 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경북대 박상진(임상공학)교수가 지난 해 봉정사 극락전 기둥에서 나무재질 샘플을 채취,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물



◇봉정사 극락전의 지붕이 처지고, 벽면과 기둥에 금이 가 붕괴 우려가 높다.

뒤쪽과 옆쪽 기둥 일부가 미국산 리기다소나무와 알래스카산 가문비나무 등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밖으로 드러난 기둥이 외국산이라면 나머지 역시 외국산 나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재청은 1995년부터 문화재연구소에서 해마다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급한 붕괴 우려는 없으나 벽체 균열이

나 공포 처짐현상이 발생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그림)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7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면적인 보수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고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의 보수공사가 끝나는 10월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무염선사 동방대보살로 존칭

곤륜산 무염사지

조영록 <동국대 교수>

적산법회원과 그리 멀지 않은 문등시현 연대시 서자진 곤륜산 아래에는 무염선사의 유적지로 추측되는 무염사지가 남아 있다. 천보원년(911)에 세운 '중수무염선사원비'에는 사원 중수때 시주한 이들이 나와 있는데, 평로절도사 왕사범(王師範, 891-905) 등 당나라 고관들과 나란히 '계림인 김청압(金淸押)'라는 이름이 보인다. 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 사회에서 압이라는 직함을 가진 김청은 절장상 명과 지역을 내왕하며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신라인으로서 적산촌 부근의 길목에



에는 대운선사(大雲禪師)가 있어 신라인 승려 통선법사가 주석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육주도는 지금은 대륙과 이어져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속성촌도 지금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부근 유원지만 버려져 있는데, 돌아와서야 그 유원지 안쪽 저수지 부근이 신라방과 법기사지임을 알게 되었다.

연운항에서 황해를 오른편으로 하고 한참을 북상했을 때 차창 밖으로 대주산(大珠山)이 보였다. 이 지역은 일찍이 신라인들이 소금과 목탄 등을 재조 운반하며 상업활동을 하던 영역이었음은 연인의 일기에서도 상술하고 있거니와 그 이후로도 한반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각국사는 우리가 복사하는 길과 반대

김청 무염원의 대시주

위치한 곤륜산 무염원의 대시주였다. 이는 주목할 만하다. 신라 구산선종 성주사파의 조사 무염선사는 장경초에 당은포(唐僧)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문등지역에 도착하여 육로로 낙양과 장안, 종남산 등지로 구별 유력하면서 강서 마조의 사법제자인 여만과 마곡보철에게 법을 인가 받고 이른바 동방대보살로 존칭되었다. 그는 전후 약 20년 간 주로 화북지방의 명승 고찰을 순례하는 동안 무종이 저지른 회창법난을 만나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곤륜산 무염원지가 아마도 무염선사가 오가며 유적하면 사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학계의 추측이다. 무염사가 반세기 후 신라인 압아 김청 등의 시주로 복원되었다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연운항시 속성촌에 있었던 신라방과 신라사원 법기사지 부근으로 답사하고 있다.

우리가 연운항시(連雲港市) 속성촌(宿城村)까지 가셔도 막상 신라방과 법기사지를 찾지 못하고 온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운항은 옛 해주(海州)로서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소성 최북단에 위치하지만 당대에는 산동성 연해의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라인이 집단 거주하던 곳이었다. 일본승 연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그들 일행이 해주 속성촌 연안에 이르러 밀주(密州)에서 초주(楚州)로 목탄을 운송해 가던 신라인들을 만나 이들의 집에 안내되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당시 속성촌 앞 바다에 호공도(湖公島, 현 죽주도가 있어 신라인들이 살았다고 한다. 속성촌에는 신라인의 절 법기사(法起寺)가 있었으며, 호공도

산동성 연해 신라인 거주

산동반도와와 관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은 고구려 유민이 이 정기(李正己, 732-781)는 안사의 난을 평정할 임무를 띠고 평로(平羅) 절도사에 임명된 이래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무려 55년 동안이나 산동성 전역을 거의 반독립국처럼 지배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 '소왕국'의 토벌(819)에 세운 공로로 두각을 나타낸 이가 바로 무염군 소장 장보고였다는 사실이다. 동주에서 제남으로 발길을 달리면서 나는 이 지역민들의 피 속에 고구려와 신라인의 피가 맥맥히 흐르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떠올려 본다.

국내 소개안된 텍스트 번역·주석 등 연구 열기

'윤독회' 새 풍속도

교양 수준의 독서회로 생각하기 쉬운 윤독회가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학계에서 번역되지 않았거나 연구가 미비한 책을 텍스트로 선택해 번역은 물론 주석까지 다는 윤독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윤독회에서 선택하고 있는 텍스트는 조선 후기에 간화선 논쟁을 일으킨 <선문수경>이나 도교적인 식견으로 불교를 다룬 <조론>과 같은 한문 문헌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선(禪) 관계를 조명 한 <돈오의 수사학(The Rhetoric of Immediacy)>이나 <전통을 향하여(The Will To Orthodoxy)>, 불교사회사상의 개론서이라 할 수 있는

<불교사회학(Buddhist Sociology)> 등의 영문 문헌까지 다양하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여개 이상의 학자별 소모임이 결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번역본이 나와 있는 문헌에 대한 자구(字句) 해석에 머물러 있는 교양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대 불교경회(佛境)장 이진오, <조론>윤독회(佛境 宗論會), 원전윤독회(佛境 源典會), 동양사학회(佛境 東洋學會) 등이 신앙의 차이를 넘어선 진지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면서 불교 문헌 읽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 <선문수경>을 2년 간

연구해 온 부산대 불교경회회는 이미 번역과 주석 작업을 마치고 교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업이 끝나는 8월경에는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다.

6년 전부터 학자들의 윤독회와 연구 소모임을 지원해 온 성철선사상연구원 최원섭 간사는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행본이나 논문과 같은 학문적 성과로 이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윤독회 모델"라며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윤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추정 목탑지와 사리공전경.

하남 천왕사지 목탑터 발견

'天王' 명기와·대형건물터 등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40-2번지 일대 옛 천왕사(天王寺) 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목탑터와 대형건물터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곳을 발굴중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은 13일 일대 약 2천여 평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목탑터로 추정되는 1곳과 건물터 1동, 담장 및 배수시설 등 모두 9기의 유구를 확인함으로써 이 곳이 대형 사찰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천왕(天王)'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여러 종류 발견됨으로써 이 곳이 문헌기록에 남아 있는 광주 천왕사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구단이 목탑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건물터에서는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석조 유물과 초석열이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빙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指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제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났던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指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함으로써 來人의 顏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한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주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 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 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2000페이지·미색용지·유색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답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한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문 대표 김 나 려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이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에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으나,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敎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問 율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土)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 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나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